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 하라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이 살다 죽을 것인가는 모든 사람이 그 정답을 알고 살아야 한다.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면 죽음으로 끝을 마친다.

인생은 공수래공수거지만, 젊었을 때는 희망에 살고 늙어 가면서는 보람에 산다고 했다.

희망을 품으면 욕구와 욕심이 있어야 하지만, 분수에 맞지 않은 욕심은 인생은 망치게 한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을 입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즉 사망에 이르니라” 했다.

인류 역사는 정치지도자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망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선 대통령이 지나친 욕심 때문에 대통령직을 마치면 교도소에 가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인생이 사는 데는 시간상으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일직선상에 있지만, 과거는 되돌아갈 수 없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아무도 모르므로 가장 중요한 현재 시각을 중시하며 보람 있게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과거 집착을 버리고

벗어나야 하며 미래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은 죽을 때 인생을 회상하며 좀 더 사랑하며 살걸, 좀 더 즐겁게 살걸,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며 살걸 하며 마지막까지 곁 곁곁... 후회하며 죽는다고 한다.

인생이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을 성경 데칼로나가 전서 / 15장 16절 ~18절에 명시 되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우리 인생이 사는 방법에 관해 안내 했다.

그렇게 살려면 항상 즐거운 마음을 품고 웃으며 사는 것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으며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한다.

일소 일소(一笑一少), 일로 일노(一怒一老)란 말이 있다.

이는 한 번 웃으면 그만큼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그만큼 늙어 간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즐겁게 살려면 항상 기뻐하고 웃으며 즐거운 마음을 품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

올해 105세인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는 인생을 회고하는 글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자, 항상 하는 일에 모범이 되는 일을 하자”라고 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며 도움을 주는 모든

분에게 감사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일하며 사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그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 모범이 되는 일을 해 남이 본받게 하며, 각 학교나 직장에서 일을 잘하라고 상품과 상장을 주어 치하하는데 그 상장에는 공통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므로 상품과 상장을 주어 표창한다고 돼 있다.

그러므로 모든 하는 일에 모범이 돼 상장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의 신이 나를 돕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하는 일마다 믿음의 신이 나를 돕고 함께하고 있으니, 감사기도를 하며, 내가 이룩한 일의 결과에 대해 감사기도를 드리며, 내가 하는 일이 잘되도록 도와 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린다.

따라서 기도에는 간구의 기도와 일의 결과에 관한 감사의 기도가 있으며 항상 기도의 제목에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인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살든지 그 시점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만들고 감사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려면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살고 하는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

독자기고

## 경기도 부천 화재를 계기로 화재 대피요령 숙지를

한 선근

고흥소방서 과학119안전센터 소방위

망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걸 명심하고 안내방송이나 창을 통해 화재가 우리 집 쪽으로 번지는지 등의 추이를 살피면서 냉철한 상황판단을 하는 게 먼저다.

최근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7명, 부상 12명 등 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둘째, 대피 방향의 기본은 발화점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

고층화, 밀집화된 건물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 사무실이나 숙박시설 용도 등의 대형건물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 우리 집 위쪽에서 불이 났다면 지상으로 대피해야 하고 우리 집 아래쪽에서 불이 났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우리 집, 사무실이나 입실한 숙박시설 등에서 불이 나면 주변에 알린 후 우선 소화를 시도해보고 소화가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문을 닫고 빠르게 대피해 119에 신고 또는 구조 요청을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는 열과 화염이 움직이는 아주 좋은 공간이고 정전시 갇힐 수 있으므로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본인 집이 아닌 아파트, 사무실이나 숙박시설 등의 다른 실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자.

다음은 화재 시 대피 방법이다. 움직일 땐 몸을 최대한 낮추고 물을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이동해야 한다. 이동 중 문이 나타난다면 열기 전에 반드시 손잡이를 만져 온도를 확인한다.

첫째는 상황판단, 둘째는 대피 방향, 마지막은 대피방법이다.

손잡이가 뜨거운 경우 문 반대쪽에 화재가 이미 번진 상황이므로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또한 문을 열고 나갔다면 반드시 다시 닫아야 연기 등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첫째, 상황판단을 할 때는 이웃 집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대피하려 밖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집에 있기로 했다면 수건에 물을 적셔 현관문을 비롯한 문 틈새를 막고 연기가 들어오면 피난시설인 완강기나 피난사

선부르게 밖으로 나왔다가 복도에 퍼진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

다.



##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발행·편집인 이문수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부 사장 기백관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서울지사본부 (우)05385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58번길 16-12 102호  
전북지사본부 (우)55921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사면 연천2길 69-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D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파브로인추출물BF-7, 루테인, EPA 및 DHA 함유유지